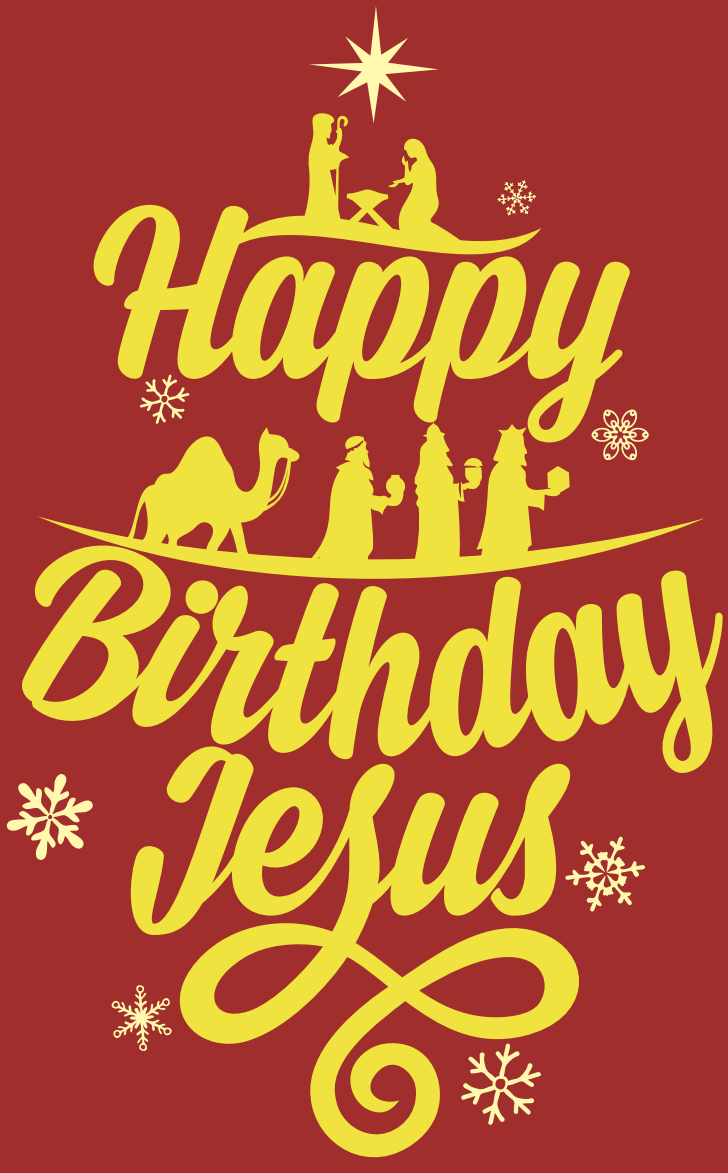
2016. 11+12 | Vol. 187
DAIL COMMUNITY 다일공동체



DAIL

따뜻한 나눔이 더욱 간절해지는 **쌀쌀한 가을**

따뜻한 나눔이 더욱 간절해지는 쌀쌀한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는 바람이 제법 옷 깃을 여미게 하는 가을 날에, 여러분께 훈훈한 소식 한 통,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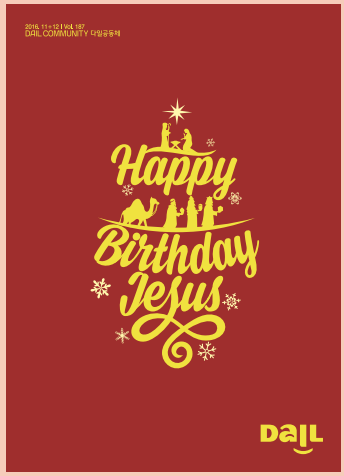
담 안에서 전해 온 이야기인데요, 바로 신창원 형제의 소식입니다. 얼마 전 캄보디아의 결연 아동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주고 싶다며 140만원의 후원금을 보내 온 신창원 형제. 액수,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창원 형제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는데 함께 보내 온 본인이 쓴 時 한 편에 제 가슴은 더욱 미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과 그리움을 꾹꾹 눌러 담아 써 내려간 글인데 읽는 내내 어찌나 눈물이 쏟아지던 지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고 이를 먼 캄보디아 땅에까지 실천해나가고 있는 창원 형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귀히 보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네팔 비전트립중에 있습니다. 이번 비전트립 기간 중 봉헌될 신두팔촉의 여섯 교회! 앞으로 이들 교회가 대지진으로 무너진 네팔 땅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지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로 29회를 맞는 다일공동체의 거리 성탄예배에 역시 많은 이웃들이 함께 모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고,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을 향해 온정의 손길을 내어줄 수 있길 따뜻한 응원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작은 형제, 최일도 올림



c . o . v . e . r . s . t . o . r . y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성탄
보내시길 바랍니다!

CONTENTS

02 천사의 날 행사

08 29번째 거리성탄예배

10 다일의 국내외 현장이야기

25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26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28 신규후원

30 후원 안내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편집위원** | 김도한, 김은진
사진 | 김도한 **디자인, 인쇄** | 틀니 디자인 어소시에이츠
발행일 | 2016년 11월 **발행처** | 다일공동체
주소 |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전화 | 02 - 2212 - 8004 **팩스** | 02 - 2243 - 8005
홈페이지 | www.dail.org

10 4

천사의 날 기념 나눔콘서트

응답하라 1992

나눔으로 하나 된 그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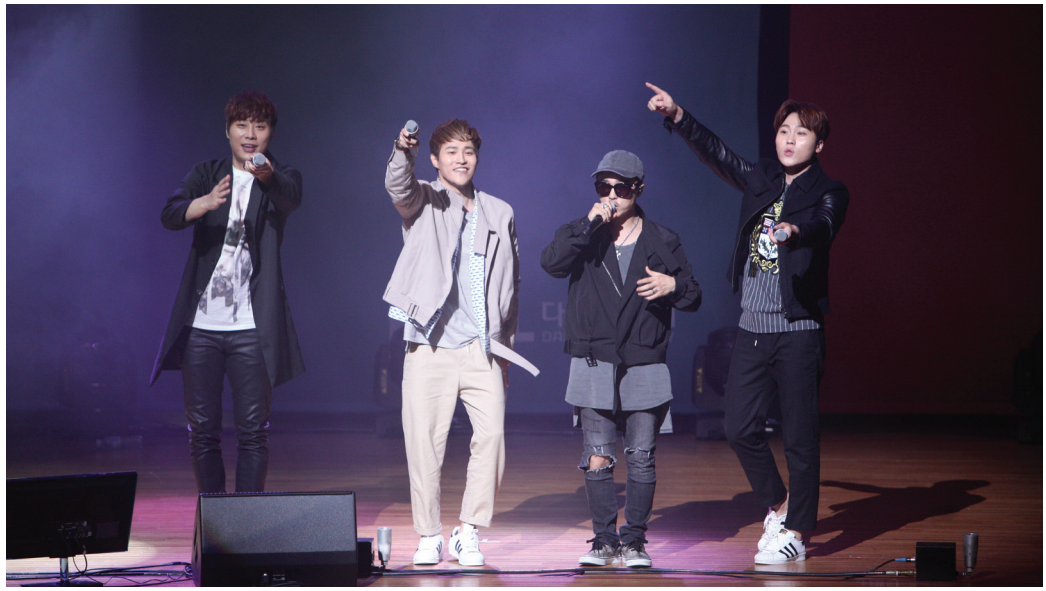
10월 4일 천사의 날 기념, 나눔 콘서트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무사히 막을 내렸습니다.

개신교 최초로 무료 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1992년 일었던 '다일 천사운동' 24주년, 이로써 설립된 '다일 천사병원' 건립 14주년을 기념해 열린 '응답하라 1992' 나눔 콘서트.

스물 네 번 째 천사의 날은 가수 김연지, 거미, 울랄라세션, 정엽의 재능기부 무대로 1500석 규모의 상명대학교 아트센터 계당홀에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수익금이 전액 아프리카 탄나지아 빈민촌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비전센터 건립 기금으로 사용 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씨야의 메인보컬 출신이자 35대 복면가왕 김연지, 인기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OST로 실시간 음원차트 1위에 오른 가수 거미, 브라운 아이드소울의 감성보컬 정엽, 믿고 보는 퍼포먼스 그룹 울랄라세션.

아이들의 소중한 꿈을 응원하기 위해 뭉친 아티스트들의 무대는 연신 뜨거운 함성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생생 현장 인터뷰 | 유쾌한 지구정복자, 울랄라세션과의 1문 1답

Q 퍼포먼스 그룹이란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매번 화끈한 무대 보여주고 계신데요. 연말이라 더 바빠지시겠어요.

연말이란 게 실감이 날 정도로 많은 곳에 불러주고 계십니다.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일 하고 있습니다.

Q 이번 콘서트 역시 재능기부로 무대에 서 주셨는데요. 재능기부를 통한 울랄라세션의 다양한 선행은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먼저 간 저희 팀의 리더, 윤택이 형이 투병생활을 했다는 것은 모르는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투병생활을 하는 기간에 저희가 어떻게든 윤택의 형의 치유를 돕기 위해서 병원 방문을 자주 했는데요. 아무래도 병원이다 보니 몸이 불편한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평소 관심이 없던 부분들까지도 눈에 많이 들어왔고요. 그즈음부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가진 재능으로나마 도움을 주고 싶단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Q 오랜 기간 나눔을 하고 계신데, 나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울랄라세션이 생각하는 나눔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나눔이란 사랑의 실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랑이 정말 가득하신 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다양한 이유로 대부분 품는 것에만 그치는 것 같아요. 그 품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나눔인 것 같습니다. 나눔이란 엄청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저 정말 작은 것이라도 실천을 통해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작은 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나눔을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느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생생 현장 인터뷰 | 35대 복면가왕 김연지와의 1문 1답

Q 지난 8월 복면가왕에서 35대 가왕으로 이름을 올리며 정말 뜨거운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뜻깊은 무대에 함께해주셨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가수로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그룹 활동을 할 때는 이같은 나눔 활동을 많이 하지 못 했습니다. 지난해 솔로 가수 데뷔 후, 받은 사랑을 돌려주자는 마음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나눌수록 제 마음이 더 풍성해지더라고요. 이번 역시 탄자니아 아이들을 위한 학교 건립 기금을 마련하는 뜻깊은 무대라 하여 망설임 없이 서게 됐습니다.

Q 나눔 콘서트를 찾은 관객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 드려요.

콘서트 수익금은 전액, 탄자니아 아이들을 위한 학교 건립기금에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티켓을 구입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나눔에 동참한 것이 되겠죠? 이곳을 찾은 모든 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함께 자리해준 만큼 감사의 뜻을 담아 저희도 마지막까지 멋진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즐겨주세요!

천사의 날 기념 나눔콘서트
응답하라 1992

생생 현장 인터뷰 | 감성보컬 정엽과의 1문 1답

Q 특유의 맷돌창법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니 정말 영광인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방송 출연은 잘 안 하고 있고요. 정엽의 '뮤직하이'라고 라디오 방송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가끔 공연과 함께 라디오 방송 활동,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Q 천사병원은 전액 후원금에 의해 건립된 병원인데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 무대를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병원 건립 기금이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모여졌다고 하니깐 정말 놀랍더라고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국민적으로 일어난 모금 운동인 천사운동이 10년 만에 결국 결실을 맺은 거잖아요. 24년 전이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모금 운동으로 병원까지 건립되었다고 하니 영상을 보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Q 재능기부로 무대에 서 주셨는데요 평소에도 기부문화에 관심이 많으시다고요?

네 아무래도 가수로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 받은 사랑을 나누고자 제가 가진 재능을 통해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지 이런저런 고민을 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에는 새로운 형태의 기부를 해보고 싶어 샘킴 셰프와 '푸드 콘서트'라고 음악과 음식이 어우러진 기부공연을 함께하기도 했었고요. 나눔 활동을 하면 늘 느끼는 거지만 내가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게 정말 뿌듯한 것 같아요. 이번 무대 역시 탄자니아 아이들을 위한 나눔의 자리라 하여 동참하게 되었는데, 이같은 나눔의 기쁨을 저 뿐 아니라 오늘 자리해준 모든 분들이 함께 느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생생 현장 인터뷰 | OST의 여왕 거미와의 1문 1답

Q ‘태양의 후예’, ‘구르미 그린 달빛’ 등 거미 씨가 불렀다 하면 그 OST는 무조건 음악차트를 휩쓰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많은 분들을 더 가까이에서 뵙고 싶어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계획했는데요. 9월 24일, 울산을 시작으로 대구, 창원, 수원, 대전, 광주, 전주, 서울까지 총 8개 도시 전국투어 중에 있습니다.

Q 탄자니아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네 팀의 가수 분들이 뭉치셨습니다. 거미 씨도 흔쾌히 동참하셨다고요.

네, 제가 아동 노동 관련 기사를 접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카펫공장, 담배공장, 벽돌공장 등 아이들 노동착취가 세계 곳곳에서 가혹하리만큼 심하게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특히 탄자니아의 경우, 아동 세 명 중 한 명은 매일 아침, 학교가 아닌 일터로 향한다고 하고요. 연필 쥐기도 쉽지 않을 그 작은 손으로 망치를 쥐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배움은 되물림 되는 빈곤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데요. 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아이들 교육을 위한 비전센터를 건립한다고 하니, 흔쾌히 동참할 수밖에요.

Q 탄자니아 아이들을 위한 꿈의 무대, 이제 그 마지막을 청하려 하는데요. 긴 시간 함께해주신 관객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말 전해주세요.

좋은 마음으로 발걸음 해준 관객분들을 모신 자리라 오늘 이 무대가 더욱 값진 것 같습니다. 다음 곡은 영화 ‘비긴 어게인’ OST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 ‘Lost Stars’인데요.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탄자니아 아이들을 생각하며 감상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들의 잃어버린 꿈을 위해…

이 날 행사의 수익금은 다일공동체가 사역하고 있는 탄자니아 빈민촌 아이들을 위한 비전센터 건립 기금으로 사용됐습니다.

빈민국 탄자니아에서도 절대적 빈곤층이라 불리는 쿤두치 채석장의 아이들. 그들은 두 손으로 들기도 버거운 망치를 쥐어 잡고 꼬박 12시간 돌을 깨는 작업을 합니다. 배움의 권리를 잃어 버린 채 매일 아침, 학교가 아닌 채석장으로 향하는 쿤두치 빈민촌 아이들.

이 날 행사에서 공로패를 수상한 박상원 홍보대사는 쿤두치 아이들이 잃어버린 꿈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했는데요. 부디 '천사운동'을 통해 '천사병원'이 건립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귀한 '나눔의 기적'이 아이들의 꿈을 위한 희망의 초석 '비전센터 건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합니다. DAIL

도움을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전주다일교회, 용설리순대국, 김금자 님, 장미득 님, 최종기 님, 다사랑기획, 김용정 변호사 님,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쟌스크릭 한인교회, 흥국생명고객케어수도지점, 이정아 님, 배임순 님, 남강비지니스트레블, 삼진제약, 동아제약, 안구세정액 아이봉, 에코푸드코리아, 포콘스, 농업회사법인 한만두식품, 뉴저지여성상담교육센터, 설곡산갈보리채플, 창덕법무사사무소, 이승철 님, 조아라 님, 이기현 님, 다일 영성수련 도우미 일동, 뮤젤보석상 대표 임성현 님, 조에 피부과의원, 뉴욕다일공동체 박미자 권사, 하담 대표 이흥기 님, 남양주 다일교회, 대흥건축 대표 엄기봉 님, 영시스 교인관리 웹청지기, 보덕메디팜, 남강비지니스트레블, 양덕장로교회, 오직상패, 한국라이온스미래포럼 대표 박영희 님, 서울메디칼약국, 조이마트, 대한예수교장로회 애일교회, 대전 동안교회, 웨슬리 회계법인, 데오빌로 주영테크, 익산샘물교회, 진은경 이사님, 김성래 님, 대외협력이사 유희숙 님

29TH
거리성탄예배

2016

12/24

11:00 am

밥퍼나눔운동본부

Merry
Christmas

02-2212-8004

29 이웃과 함께하는 다일공동체의 29번째 거리성탄예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다일공동체에서 주관하는 거리 성탄예배가 올해로 29회를 맞았습니다. 1988년 12월 25일, 쌍굴다리 아래에서 집 없는 세 분의 노숙인 형제들과 함께 초 한 자루를 켜 놓고 드리기 시작한 성탄예배.

이를 시작으로 해마다 거리에서 성탄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일공동체는 올해 역시 이웃과 함께 성탄 맞이 감사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 지셨고 사회로부터 외면 받고 핍박 받는 이들을 돌보셨습니다. 예수님의 귀한 뜻을 이어 받아 다일공동체는 노숙인, 무의탁 노인, 외국인 노동자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섬김을 30여년 전부터 이어 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 25일에는 추위로 잔뜩 웅크려있을 이들이 이웃의 냉담한 시선으로 인해 더 움츠려 들지 않도록 거리성탄 예배 후 따끈한 성탄 특식과 함께 기증받은 방한복을 나눠주는 등 따뜻한 사랑의 나눔 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3,000여 명이 함께하는 거리 성탄예배! 다일공동체가 올해 역시 많은 이들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리고,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을 향한 온정을 뻗어갈 수 있도록 응원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행사를 준비하고, 마치는데 나눔의 손길이 간절합니다. 사랑의 손길 내어주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연락주세요! DAIL

현 · 장 · 이 · 야 · 기

네팔 NEPAL

최 홍 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밥퍼와 빵퍼에서 꿈퍼로!

다일공동체는 네팔 지진 직후, 긴급구호를 시작하여 10여 차례에 걸쳐 구호팀을 파송, 지속적으로 복구활동을 해왔습니다. 밥퍼 차량을 이용해 긴급 구호 물품인 쌀과 천막, 모기장을 나누어 주는가하면 지진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의료캠프를 열어 고통 속 희망까지 잃어버리는 일은 없도록 언제나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 드렸습니다.

언젠가 긴급 구호를 위해 다일공동체 설립자, 최일도 목사님께서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건물뿐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 앗아간 네팔 대지진. 목사님께서는 다일공동체 사역지에서 밥을 퍼주고 빵을 나누는 밥퍼와 빵퍼뿐 아니라 지진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을 세워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다일공동체가 지진 지역에서 변함없이 섬기는 것을 지켜봐 왔던 지역 주민 세 분은 그 뜻을 너무 고마워하며 고아원 부지로 땅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후원을 해

주겠다는 의사를 우리에게 전해왔습니다. 땅을 후원하기로 한 '릴라 박타 스레스타'님의 경우에는 다일공동체가 가난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많은 이 땅을 위해 고아원을 세운다면 자기의 땅 가운데 원하는 만큼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내어드리겠다며 말 떨어지기 무섭게 변호사와 함께 약정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그렇게 고아원 부지로 선정된 곳은 '릴라 박타 스레스타'님이 후원을 약속한 '신두팔촉' 지역과 인드라워띠 강이 내려다보이는 꼴라띠시의 '붐르딸' 지역입니다. 이곳에 네팔의 꿈퍼, 고아원이 설립되어 아이들이 아픈 현실을 딛고 일어나 아름다운 세상을 찾고, 누리고,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지에 고아원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건축비 3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지가 마련될 수 있었듯 건축비 또한 속히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밥퍼와 빵퍼에서 이제는 네팔의 꿈퍼로 나아갈 수 있길, 그래서 어둠속에 있던 아이들이 빛의 자녀요 세상에 예수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길, 함께 응원해주시고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원봉사 및 후원안내

네 팔 : 977-98038-00670,
977-98494-58330
한 국 : 02-2212-8004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57448
예 금 주: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

네팔 다일공동체 | +977-98494-58330

지진으로 집을 잃은 신두팔촉 지역의 아이들

필리핀 다일 유치원 아동들의 즐거운 소풍

필리핀
PHILLIPHINE

류주형 필리핀 다일공동체 원장

9월 7일 다일유치원 필드트립 소풍

매년 9월이 되면 필리핀 다일 유치원 아동들은 소풍을 갑니다. 이번 소풍은 유치원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파라다이스 동물원 이었습니다.

더러운 하수가 그대로 흘러내리는 좁디 좁은 골목에 집이라 부를 수도 없는 넝마 같은 단칸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조금이라도 넓은 길에는 매연을 내뿜은 지프니와 오토바이들이 쉴새 없이 내달리는 가난한 마을에서 태어난 아이들. 어쩌면 단 한번도 숨이 찰 때까지 멈추지 않고 마음껏 달려보지 못했을 아이들에게 소풍이란 상상 그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늘 소풍 장소를 정할 때면 최 우선순위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넓은 잔디밭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소풍을 자주 가면 참 좋겠지만 여건 상 소풍은 1년에 단 한번밖에 갈 수 없습니다. 4세 아동들로 이루어진 유치원 소풍은 안전과 교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가 아이들과 동행해야 하는데 워낙 형편이 좋지 않아 단 하루라도 생업을 내려놓고 아이들과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부모로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9월 7일, 이 날은 오래 전부터 공지를 해서 단 한 명도 빠지는 이 없이 모두가 시간을 내 함께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참가비를 내지 못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1대1 아동 결연을 통해 참가비를 지원받았고 이마저 매칭되지 못한 아이는 스텝들이 사비를 털어 소풍에 참여시켰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느라 할머니와 같이 사는 자스민은 소풍을 위해 하루 휴가를 낸 엄마와 함께 있는것이 어찌나 행복했던지 온종일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스민을 돌보던 할머니도 아침부터 들떠있는 자스민의 모습에 버스가 출발 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좋아하셨습니다.

기대가 커 그랬는지 도착 후 둘러본 동물원의 모습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동물들만 모아 오밀조밀 배치해 놓은 동물원은 한국 동물원에 비해 너무나도 부실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신나고 해맑게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즐기는 아이들을 보며 동물원의 규모나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점심 시간에는 그늘에 앉아 각자 집에서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꺼내 다일공동체에서 준비한 치킨과 과자꾸러미들을 끌러 함께 나누어 먹는데

어찌나 다들 행복해 하는지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든든히 배를 채운 뒤에는 넓디넓은 잔디밭에 모여 보물찾기, 사탕 따먹기, 포대자루 달리기 등 신나는 레크레이션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이들보다 어머니들이, 어머니들보다 현지 스텝들이 더 신나게 참여하여 아이들에게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생각해 보니 다일 유치원 선생님들을 포함한 현지 스텝들 또한 유치원 원생들에 비해 형편이 조금 낫긴 하지만 그래도 소풍 때가 아니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며 이런 자리를 만들어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새삼 깨달으니 아이들처럼 신나게 뛰어 노는 스텝들에게 왠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어우러졌던 즐거운 소풍! 어찌나 신나게 뛰놀았던지 아이들은 돌아오는 버스 안, 머리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식기도 전에 모두 곯아 떨어졌습니다. 새근새근 곤히 잠든 아이들. 우린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하루빨리 아이들이 이 비참한 생활고에서 벗어나 오늘처럼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날이 오길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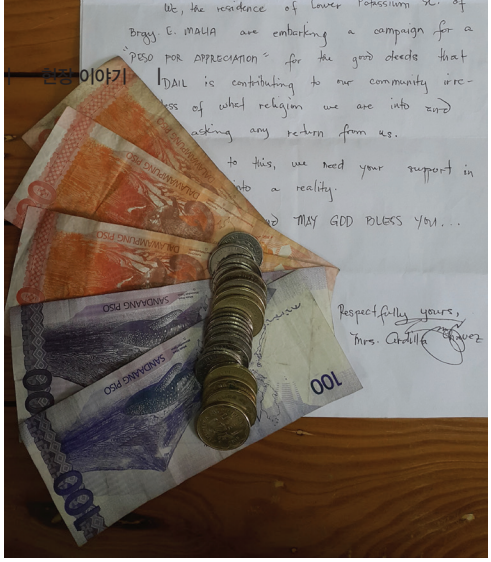
자존심 유지비 100원이 1인 1페소 운동으로

며칠 전 한참 아이들에게 밥을 나누고 있을 때 한 아주머니가 상기된 얼굴로 밥퍼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는지 내심 걱정하며 인사를 했는데 불쑥 봉투 하나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레 들여다 보니 그 봉투 안에는 따갈로그로 쓰여진 편지 한 통과 영어로 번역된 편지 한 통 그리고 316페소(한국 돈 약 8,000원) 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 보니 그 내용이 참 놀라왔습니다.

말리아 지역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이 모여있는 밥퍼 주변 주민들이 다일공동체가 지역을 위해 종교 상관 없이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섬겨주었음에 감사드리며 1인 1페소 캠페인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찾아온 아주머니는 통장 정도 되는 분으로 몇 년을 지켜봐도 언제나 변함없는 다일공동체의 모습에 감동하여 이런 일을 주도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적은 액수가 부끄러워서인지 봉투만 주고 황급히 돌아가려는 아주머니를 붙잡고 지금 밥 먹고 있는 아이들에게 꼭 한마디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직 따갈로그를 조금도 알아듣지 못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리고 저희에게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그 아주머니의 마음이 너무나도 잘 전달이 되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캠페인 함께 이어갑시다! 하지만 다음 번에는 마을이 다일공동체에 감사하기 위한 캠페인이 아닌 마을이 다일공동체와 함께 아이들을 살리기 위한 캠페인으로 합시다!"
이 말에 아주머니는 더욱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그것이 바로 모두가 원하는 것이라며 꼭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떠나셨습니다.

동전이 가득한 봉투를 손에 쥐고 아주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최일도 목사님께 가난한 이들도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무료병원을 세워달라며 588 직업여성들이 모아 온 47만5천원이 떠올랐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강제 이주된 말리아 빈민들. 아직도 가난이 대물림 되는 이 지역에서 가난한 이들이 더 가난한 이들을 도와달라며 모아온 이 돈은 자신은 가난하고 비참하게 살아왔지만 아이들에게만큼은 밝은 미래를 물려주고 싶은 발버둥이요 울부짖음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 외에 지역구 공무원들과 마을 대표들도 다일의 사역에 감사를 표하며 도움을 주기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아동결연 대상자 조사에 도움을 청했더니 흔쾌히 관리하고 있는 리스트를 제공하고 함께 가정방문할 인력들을 보내 준 바랑가이 캡틴(지자체 장). 처음 설립 당시 그토록 다일공동체를 매몰차게 배척하던 마을 주민들이 이제는 먼저 감사도 표하고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316페소와 편지

한국에서 그 작은 정성이 씨앗이 되어 수많은 천사의 손길들로 이어져 마침내 다일 천사병원이 기적적으로 세워지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이곳, 소외된 필리핀 시골 마을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모아온 316페소가 씨앗이 되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청량리 밥퍼의 자존심 유지비 100원이 모여 시작된 필리핀 다일공동체,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벌인 1인 1페소 운동.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도 기적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이 기적이 앞으로도 끊이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할 때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천사의 손길이 간절합니다.

1. 1:1 아동결연 후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아직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밥퍼에서 먹는 한끼 식사가 하루의 전부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돈 걱정 없이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아이들이 밥퍼에서 한끼, 집에서 한끼 적어도 하루 두 끼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아이들의 후원자가 돼 주십시오.

2. 천사 클리닉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오물과 하수가 그대로 흐르는 길 위에 비가 그대로 새는 지붕 아래, 쌀 포대로 벽을 덮은 작은 방 안에 대가족이 모여 살다 보니 피부병과 눈병 등 수인성 전염병과 모기로 인한 뎅기열이 자주 발생합니다. 의료봉사자와 의약품 지원 등 클리닉 정상화를 위한 후원자가 돼 주십시오.

3. 청소년들이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어느덧 처음 다일 유치원을 졸업한 4세 아동들이 10대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아직 고사리손으로 꼭꼭 눌러 쓴 아이들의 장래희망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의 현실은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가혹합니다. 이제 청소년이 된 이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필리핀에서도 다일 호프스쿨이 시작되는 기적을 보았으면 합니다. 새로운 시작의 마중물이 될 소중한 후원을 기다립니다.

4. 네팔 다일공동체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한성희 전 원장님에 이어 저희 가족(류주형, 박설희, 류은설, 류은송)이 필리핀으로 파송된 지 3주가 되어 갑니다. 그동안 익숙치 못한 환경에 아이들이 잔병치레를 하여 가슴을 쓸어 내리곤 했지만 감사하게도 잘 회복하여 건강히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짧은 준비기간 탓에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으나 저희 가정의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들어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DAIL

자원봉사 및 후원안내

필리핀 : 0927-560-7346 (류주형 원장)
한 국 : 02-2212-8004
후원계좌: 국민은행 467701-01-142581
예 금 주: 사회복지법인 다일공동체

필리핀 다일공동체 | +63-92-7560-7346

탄자니아
TANZANIA

박종원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서울가든 사장님 부부의 섬김과 봉사

한국 식당이 3개뿐인 탄자니아에서 이승일 사장님과 박혜경 사모님 부부가 운영하는 '서울가든'은 한국음식뿐 아니라 일본음식, 태국음식도 아주 일품인 음식점입니다. 그러나 더욱 일품인 것은 쿤두치 빈민촌 아이들을 향한 이분들의 섬김과 봉사입니다.

매달 밥퍼 배식비와 특식을 후원해주시고 직접 봉사도 나오시는 이승일 님 부부. 밥퍼 봉사를 오실 때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특별한 점심도 준비해 오시고, 호프클래스 학생들의 생일잔치가 있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손수 만든 케이크도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손맛 좋은 박혜경 사모님의 케이크! 꺼내기 무섭게 사라지는 사모님의 케이크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항상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챙겨주려 애쓰는 이승일 님 부부! 늘 감사합니다. 앞으로 '서울가든'이 더욱 번창하여 우리 밥퍼가 두 분의 지속적인 섬김과 나눔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지길 기원합니다.

제3기 호프클래스 학생들 화이팅!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다니지 못 하거나 중도에 그만둔 7~13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시작된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의 대안학교, 호프클래스가 어느덧3번째 졸업생 배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시작하여 12월 졸업을 앞두고 있는 호프클래스 3기 학생들. 입학 당시만해도 처음 잡아보는 연필, 처음 입어보는 교복 등 모든 것을 어색해하던 학생들이었는데 이제는 언제 그랬었냐는 듯 지난 날 낯설어하던 그 모습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A, B, C도 모르던 아이들이 제법 읽기, 쓰기도 하고 덧셈, 뺄셈도 곧 잘 풀어냅니다. 이처럼 배움을 통해 쑥쑥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찌나 뿌듯하고, 자랑스러운지요.

11월 말, 마지막 시험을 치르고 12월 초 졸업식을 갖는 호프클래스 3기 학생들! 아이들은 12월 중순부터 일반 초등학교로 편입하기 위한 편입학 테스트와 면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처럼 건강하게 학업을 마치고, 더 큰 세상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후원회원 님의 관심과 사랑 덕입니다. 올 한해도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와 아이들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후원 회원님들! 아이들과 스텝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고이 담아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Dall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 +255-755-154-246

서울가든에서 후원한 케이크로 생일잔치 중인 호프클래스 학생들

호프클래스 미술시간

캄보디아
CAMBODIA

김형길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Special Me 이야기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는 이른 아침부터 아이들의 끝없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선생님, 오늘 영어 수업하는 날 맞지요?"
"선생님, 오늘 두 시에 가면 되지요?" 아이들이 떼로 몰려와 묻고 또 묻습니다.
손에 꼽으며 기다리던 영어 수업날이 오늘이 맞는 건지, 선생님에게 다시 한 번 확인 차 묻는 것 이지요.

선생님이 두 손 가득 수업 준비물을 가지고 오면 아이들은 너도 나도 돕겠다며 선생님 손에 있는 준비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다같이 신나게 도서관 이층으로 향하는 아이들.
도서관 이층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자물쇠로 굳게 닫힌 그곳의 문을 열면 아이들은 누가 먼저라도 할 것 없이 잽싸게 뛰어들어가 자리를 잡습니다. 선생님의 출석 부르는 소리에 "크놈!(저요!)"누구보다도 크게 대답도 하고, How are you today? 묻는 질문엔 "써바이!(행복해요!) 라고 답하는 아이들.

매주 화요일, 목요일에 있는 영어시간을 아이들은 제일 좋아합니다. 마침내 영어수업이 시작되면 아이들은 신나는 율동으로 영어노래를 익힙니다. 좋아하는 노래는 "넥끄루, 모이띠읃!"(선생님, 한 번 더요!) 이야기하고는 더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부르기도 하지요.
노래 시간에 이어 빅북(큼지막하고 두꺼운 그림책)을 꺼내 수업을 할 때면 아이들의 눈은 더 초롱초롱해집니다. 스페셜미 빅북은 아이들이 보기에 너무도 매력적인가 봅니다. 예쁜 그림이 아이들의 눈동자에 반짝반짝, 가득 담깁니다. 선생님이 읽어주는 영어 발음을 집중해 듣기도 하고, 다같이 큰소리로 따라 읽기도 합니다. 알파벳도 모르는 아이들도 있지만,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영어 동화 시간을 아이들은 참 즐거워합니다.
이후 이어지는 워크북 시간에는 쓱싹쓱싹 가위를 이용해 오리기와 붙이기도 하고, 다양한 색상의 색연필을 이용해서 예쁜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캄보디아 학교수업에는 예체능 수업이 따로 없기 때문에 노래하고,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어 시간을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의 하교 시간, 아이들은 밝은 얼굴로 선생님께 영어 인사를 건넵니다. 어떤 친구는 늘 마지막 인사에 Good Bye, teacher! See you, I Love you(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사랑해요!) 이야길 해서 선생님의 얼굴과 마음에 따스한 사랑을 함께 건네기도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사랑스런 캄보디아의 아이들에게 '스페셜미' 측에서 10월부터 매월 정기적 으로 워크북을 후원해주실 것을 약속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캄보디아의 영어 시간이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현재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는 아이들이 영어 수업시간을 통해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작은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영어 동화반인데요. 동화반이 순조롭게 운영 되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특히 다량의 동화책 후원이 간절하니 뜻이 있으신 분들, 아이들의 꿈을 함께 키워나가 주실 분들, 많이 많이 연락주세요! DAIL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 +855-12-808-861

영어 수업 중인 캄보디아 아이들

중국
CHINA

이희준 중국 다일공동체 원장

학교 운동회

10월 훈춘은 각 학교마다 가을 운동회가 한창입니다. 가을 운동회는 단순히 체육대회가 아니라 학교와 학생, 학부모 간의 특별한 축제의 장으로써 2,3일에 걸쳐 이어집니다. 매년 운동회 때마다 이름을 날리는 중국 다일공동체 박진우, 박진석 그리고 리명호, 쉬티엔룽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시 달리기 1등을 하며 각자의 반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좀 촌스럽고 투박한 듯하지만 1년에 한번뿐인 훈춘의 가을 운동회를 함께 경험하며 한국의 세련되고 정돈된 체육대회와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추석, 중추절

이곳의 추석은 오히려 우리나라와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은 연휴도 길고, 설날처럼 대명절로 지키는데 반해 이곳의 추석은 하루만 쉬는 작은 명절에 속합니다. 조선족 분들은 산소를 돌보러 가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묘나 차례를 지내기 보다는 월병을 사서 먹으며 가족끼리 조촐하게 보냅니다. 중다일 가족들은 올 추석, 훈춘시 부련회의 초청으로 즐거운 월병 만들기 활동을 하였습니다.

김성춘 항주 회사 취업

중다일 김성춘(남, 조선족, 23살)이 중국 항주의 회사에 취업이 되어 중국 다일공동체에서 독립, 항주로 떠났습니다. 2005년 소(초등)학교 4학년에 다일 가족이 된 김성춘 어린이. 그간 어려움도 많았지만 성춘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 사회로 힘찬 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성춘이를 위해 그동안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특별히 그동안 성춘이 대학등록금과 대학 생활비까지 언제나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콩두의 한윤주 사장님과 북경의 민경식 님, 허 에스더 님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마지막 1년, 최예화

현재 우리집 제일 큰언니는 최예화 입니다. 예화는 현재 장춘 사범대학 사회복리과 에 재학중입니다. 중다일이 처음 세워진 1999년 밀강에서 다일 가족이 된 예화는 현재 남은 아아이들 중 독립을 앞둔 마지막 학생입니다. 중다일의 산증인이기도 하죠. 현재 대학교 4학년인 예화 역시 이제 곧 대학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나간다고 생각하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비록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고 글로는 차마 적기 어려운 아픔들이 있지만 늘 밝고 긍정적인 예화는 현재 남은 대학 생활 1년을 마무리하며 오전에는 훈춘시 서취(동사무소)에서 사회복리 실습을 하고 오후에는 상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화의 마지막 등록금을 내야합니다. 마지막까지 아무 근심 없이 학업과 실습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화의 마지막 1년 대학 등록금 백만원을 후원해주실 후원자를 기다립니다. 예화에 대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한국 다일공동체나 중다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DAIL

중국 다일공동체 | +86-433-753-8004

❶ ❷ 가을 운동회 모습
❸ 항주로 떠나기 전 김성춘
❹ 2004년 최예화 어린이

우간다
Uganda

김혜경 우간다 다일공동체 원장

새 비전센터에서…

건물을 임대하여 우간다 다일공동체 비전센터를 운영한지 세 달째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 비전센터 내에는 원목식탁 15개와 긴 의자 30개가 마련되었고 이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곳에 둘러앉아 일대일 아동결연 후원자님들에게 보내드릴 성탄카드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현재까지 일대일로 맺어진 결연아동은 45명으로 아이들은 45분의 후원자님들에게 보낼 성탄카드를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님들 덕분에 물품 지급일이라 불리는 올 '스폰서 데이'도 불어나는 옥수수가루포대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 달에 3만원씩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님의 사랑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후원자님들의 사랑으로 커가는 아이들

우간다 다일공동체가 매일 빵퍼로 섬기는 키티코 초등학교는 올해의 마지막 학기인 3학기가 시작 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연아동 45명의 학비를 전액 지불하고 캐나다 토론토에서 보내주신 후원자님의 사랑으로 새 학기 첫날, 전교생에게 노트와 연필, 볼펜 등 문구류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뜻밖의 선물을 받고 행복해 하는 깜장 천사들... 그 미소는 정말 일품 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겐 너무도 귀한 공책이요 연필인거 아시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꿈퍼 학사'가 순조롭게 준비될 수 있길!

고아들을 위한 그룹홈인 '꿈퍼 학사'를 준비하느라 침대 여덟 세트와 기타 침구류, 책장을 마련하여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운영허가를 받기까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라 오픈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심의절차를 밟게 한다고 하니,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간다 다일공동체는 밥퍼와 꿈퍼를 통해 배고픈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누고, 내일을 꿈꾸는 희망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후원자님들의 꾸준한 관심과 사랑으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서 희망의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길, 그리하여 아이들 한 명 한 명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아프리카입니다! DAIL

우간다 다일공동체 | +256-77107-2382

스폰서데이에 받은 물품을 앞에두고 단체사진

베트남
VIETNAM

이애리 베트남 다일공동체 원장

빈흥화 지역에서의 활동을 마무리 하며…

베트남 다일공동체는 2002년 6월 다일공동체 설립자 최일도 이사장님이 알리안츠생명으로부터 올 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으로 선정되며 받은 상금 5천만원이 씨앗이 돼 설립된 곳입니다.

비전센터 이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첫 밥퍼 사역을 시작한 빈흥화 지역에 정이 많이 들어서인지 시원섭섭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마지막 밥퍼를 마쳤을 때는 만감이 교차하기까지 했습니다.

새 비전센터 이전 지역은 호치민입니다. 비전센터 이전을 위해 호치민 적십자와 함께 새로운 사역지를 탐방하고 지역조사를 하며 주민들을 만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개원식을 갖는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호치민에서도 특히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열악한 지역에 들어서는 새 비전센터. 베트남 비전센터가 빈흥화 지역에 이어 호치민 지역 주민들에게도 축복의 통로역할을 능히 해낼 수 있길 기도합니다.

베트남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세운 '베트남 다일비전센터'

다일공동체는 늘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베트남 다일비전센터 건축도 한 순간 한 순간이 모두 기적같이 느껴집니다. 작지만 소중한 소액부터 백만원, 이백만 원 후원해 주신 Mr. KIM, Mrs. PARK, 신덕현 님, 허혜숙 님, 사이공한인연합교회, 밥퍼29팀, 미주다일공동체, 전순호 님, 정순애 님, 서우현 님, 윤귀자 님, 백암교회, 이강수 님, 서희숙 님, 다일공동체 갈보리채플, 김휘진지점장(베트남 호치민 푸미흥지점), 경주제일교회, 김경중 님, 구본화 님, 고갑순 님, 명희경 님, VEGAS, 박성옥 님, 김선영 님, 김필수 님, 한영덕 님, 성준완 님, 김석균 님, 최형주 님, 유호인 님, 유혜영 님, 유문선 님, Brent W. Jones, 손명화 님, 강숙주 님, 김희자 님, 유학심 님, 이기남 님, 이심배 님, 김정예 님, 서연희 님, 서경희 님, 서현이 님, 김성원 님, 한숙자 님, 전홍종 님, 김병열 님, 정미정 님, 박진오 님, Hyun Jin & Kil Soo Lee 님, Youngsook C. Park 님, 차광자 님, Dental Implant Center, 공혜옥 님, 정분연 님, 나수정 님 외 무명으로 섬겨주신 분들과 식사를 준비하는데 있어 필요한 기자재를 후원해주신 베트남 호치민 7군, LOTTE MART, HAPPY COOK, 추원미 님 그리고 개원식을 위해 선물을 준비해주신 송월타월, 지현정 님, 추원미 님, 안연숙 님 등 이 모든 분들 덕에 베트남 다일비전센터가 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에 후원자 분들의 고마움을 담아 늘 밥을 나누는 순간 순간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비전센터 개원식 단체사진

비전센터 개원식

개원식, 첫 발을 내딛다!

10월 7일 드디어 베트남 다일비전센터 개원식이 진행했습니다. 호치민을 대표해 호치민적십자 대표, 부대표, 7군인민위원회 대표, 7군적십자 대표, 부대표, 떤흥마을 인민위원회 대표님이 참석해 주셨고, 한국에서는 개원식 소식에 다일공동체 최일도 이사장, 김연수 상임대표를 비롯한 베트남 비전트립 팀이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한국 기업을 대표하여 여러 기업의 후원자 분들과, 교회 관계자 분들, 늘 밥퍼 봉사를 함께해주셨던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디어 개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고 개원식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새로운 꿈을 꾸는 베트남 비전센터

이곳에서 새로 시작할 일들을 기대하고 또 기다립니다. 호치민에서는 기존 밥퍼 뿐만이 아니라 밥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빵을 들고 찾아가는 빵퍼 사역도 함께 진행합니다. 또한 빵을 만드는 기술을 나눠 현지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자체 내에서도 사람을 세우고 교육하는 일들도 병행하려 합니다.

비전센터는 앞으로 열악한 환경으로 집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장과 쉼터가 되어 줄 것입니다. 공부를 가르쳐 주는 봉사자 선생님들도 모시어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꿈퍼 사역도 이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새 비전센터에서 새 꿈을 꿀 베트남 다일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베트남 다일공동체를 사랑하고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DAIL

베트남 다일공동체 | +84-9038-20918

비전센터 개원식 컷팅식

밥퍼 나눔운동본부
BABFOR SHARING MOVEMENT

변창재 밥퍼나눔운동본부 부본부장

9월 10일 추석을 맞이하여 나눔의 기쁨이 가득한 밥퍼

추석 준비가 한창인 오늘은 봉사자들의 땀방울로 가득한 날입니다. 추석맞이 음식 준비와 함께 어르신들에게 드릴 선물을 포장하는 작업으로 분주했던 하루. 일은 조금 고됐지만 기쁘게 받으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모두가 한 마음이 됐던 행복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쌀을 가득 담은 봉지에 정성껏 볶은 고추장을 작은 통에 담아 넣어드리고, 알맞게 구운 와플과 컵라면에 우유까지 넣으면 추석 선물 완성!

식사 후, 선물뿐 아니라 봉사자들의 정성도 가득 담긴 선물을 즐겁게 받아 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며 저희 스태프들과 봉사자들은 더욱 챙겨드리지 못함에 죄송해하며 앞으로 더욱 더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밥퍼가 되겠노라 다짐하였습니다.

10월 1일 받은 만큼 돌려주는 마음이 생겨나는 밥퍼

선선한 바람이 부는 10월의 첫날, 경희여중 3학년 서수연 학생이 어머니와 함께 밥퍼에 봉사를 왔습니다. 서수연 학생은 일전에 밥퍼 봉사를 왔다가 느낀 소감을 봉사 수기 공모전에 제출했는데, 그 수기가 당선이 되어 50만원을 상금으로 받았다고 하며 그 상금을 고스란히 밥퍼로 가져왔습니다. 밥퍼를 통해 받은 당선금이니 다시 밥퍼로 돌려주는 것이라며 수줍게 소감을 전하는 서수연 학생. 수연 학생의 봉사소감에 밥퍼에 계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실 서수연 학생은 처음에는 봉사 시간을 채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봉사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하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땀이 얼마나 소중한 땀인지 깨닫게 되었고, 이후 봉사에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수연 학생. 수연 학생은 어떤 날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손이 후들 거릴 정도로 일이 힘들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면 곧 괜찮아진다고 말합니다. 이제 자신이 봉사로 얻은 기쁨을 다른 친구들과도 나누고 싶다며 친구들에게 밥퍼 봉사까지 권하는 그녀. 앞으로도 밥퍼와 쭉 함께해요.

10월 8일 정성과 흥겨움이 넘치는 밥퍼

소외된 이웃들을 위하여 매일 만원씩 모아 365만원을 행복 도시락 통에 넣어 결혼기념일마다 밥퍼로 들

고 오는 아름다운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션, 정혜영 부부. 이 부부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결혼 12주년을 맞이하여 밥퍼로 봉사를 오셨습니다.
"올해는 윤달이 있어 366만원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션 씨의 모습을 보며 하루하루 정성으로 모으는 만원이 얼마나 귀한 금액인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넘쳐서 선심 쓰듯 베푸는 사랑이 아닌 근검절약 하며 정성껏 후원금을 모은 부부이기에 부부를 통한 나눔의 의미가 더 잘 전달이 되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세빛섬과 함께하는 어르신 힐링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밥퍼에 가수 이길 씨도 방문해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의 흥을 돋아주신 가수 이길 씨의 노래로 어르신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흥겹게 어깨를 들썩이셨습니다.

오늘 하루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션, 정혜영 부부와 가수 이길 씨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DAIL

밥퍼나눔운동본부 | 02-2214-0365

❶❷ 추석 맞이 잔치 준비 중인 봉사자들
❸ 션과 정혜영 가족의 밥퍼봉사
❹ 추석맞이 행사를 위해 밥퍼나눔운동본부에 모이신 어르신들

다일 천사병원
DAIL ANGEL'S HOSPITAL
다일 작은천국
DAIL LITTLE HEAVEN

임정순 다일 작은천국 원장

작은천국의 영원한 Family 이창연님

다일 작은천국에서 만 3년 동안 한 가족처럼 지냈던 이창연 님(67세)께서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처음 이 곳에 왔을 때 뇌경색과 목 디스크를 앓고 계셨고, 다리 또한 많이 불편하신 상태셨지만 늘 본인보다 몸이 더 좋지 않은 환우들을 챙기는 따뜻한 심성의 할아버님이셨던 이창연 님. 저희는 그 모습에 감동이 되어 할아버님께 무상으로 상하틀니를 제공해드리기도 했습니다. 틀니를 착용해보시고는 너무 고맙다며 해맑게 웃으시는 이창연 할아버님의 모습이 저희는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새 틀니를 착용한 이창연 할아버님

하지만 이렇게 미소가 아름다운 이창연 할아버님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항상 가족의 품을 그리워하셨던 이창연 할아버님. 그런 할아버님에게 얼마 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그리워하던 따님과 연락이 닿은 것입니다. 따님과 감격스런 상봉을 한 이창연 님은 그렇게 9월 말, 딸의 형편이 나아지면서 따님이 사는 대구로 함께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할아버님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소식에 그 누구보다 기뻐한 작은천국 식구들. 그 즈음 이창연님을 입소 때부터 괴롭히던 뇌경색과 목 디스크가 작은천국 식구들의 보살핌으로 거의 완치가 된 겸경사까지 일어났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축하해드리며 가족의 품으로 보내드릴 준비를 함께 마친 작은천국 식구들. 분명 기쁜 일이지만, 그동안 같은 방에서 함께 지내던 입소자들은 정이 많이 들어서 인지 헤어지는 것을 정말 많이 아쉬워하셨습니다. 함께 지내다 헤어지는 것은 언제나 서운하고, 아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신 이창연 할아버님!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추억으로 돌리고 따님과 사위와 손주들과 함께 남은여생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몸은 멀리 떨어지지만 다일 작은천국 가족들은 언제나 이창연님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DAIL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 02-2213-8004

입소자를 반갑게 맞아주는 이창연 할아버님

비스와바 쉼보르스카

>>>

두 번은 없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우리가, 세상이란 이름의 학교에서
가장 바보 같은 학생일지라도
여름에도 겨울에도
낙제란 없는 법.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어제, 누군가 내 곁에서
네 이름을 큰 소리로 불렀을 때,
내겐 마치 열린 창문으로
한 송이 장미꽃이 떨어져 내리는 것 같았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난 벽을 향해 얼굴을 돌려버렸다.
장미? 장미가 어떤 모양이었지?

꽃이었던가, 돌이었던가?
힘겨운 나날들,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는가.
너는 존재한다—그러므로 사라질 것이다
너는 사라진다—그러므로 아름답다

미소 짓고, 어깨동무하며
우리 함께 일치점을 찾아보자.
비록 우리가 두 개의 투명한 물방울처럼
서로 다를지라도….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I . am . a . happy . **volunteer**

밥퍼 나눔운동본부

장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학생들이 밥퍼를 방문해주셨습니다. 밝은 에너지를 뿜으며 봉사를 해주신 대학생 여러분들을 보니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나눔과 섬김의 자세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 나가길 기도합니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많은 외국인들이 밥퍼로 봉사를 오셨습니다. 비록 말은 잘 통하지 않았어도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 봉사활동만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도 또 오겠다고 다음 달 봉사 예약까지 하고 가셨답니다.

주안장로교회

주안장로교회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봉사를 왔습니다. 아이들은 마늘을 까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은 아이들이지만 앞으로 이 아이들이 커서 더욱 커다란 나눔을 실천하는 아이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작은천국

배화여대 HOW팀

매번 정기적으로 다일 작은천국을 찾아주시며 귀중한 손길을 내밀어주는 배화여대 봉사활동 동아리 H.O.W(Heaven Of Wonderment). 매번 올 때마다 행복이 넘치는 모습으로 다일 작은천국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에너지를 팍팍! 전해 줍니다. 프로그램 도우미와 말벗 도우미뿐 아니라 다일 천사병원 청소 등 어떤 활동이든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환하게 웃으며 섬겨주는 배화여대 봉사팀. 다일 작은천국 어르신들과 저희 직원들에게 언제나 넘치는 에너지를 쏟아주시는 배화여대 봉사 동아리 HOW팀, 늘 감사합니다.

숭실대학교 단체팀

숭실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전공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론보다 사회복지 현장을 직접 체험함으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실전을 익히기 위해 다일 작은천국을 찾아 주셨습니다. 다일 작은천국에 많은 봉사자들께서 왔다 가시지만 그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을 보여준 숭실대학교 봉사팀. 피드백을 줄 때마다 숭실대학교 봉사활동 팀의 반짝반짝 거리던 눈빛이 아직도 잊혀 지지 않습니다. 숭실대학교 예비 사회복지사 봉사팀을 다음번 봉사활동에서도 또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중국 다일공동체

훈춘시 민정국

중국 다일어린이집 관할부서인 훈춘시 민정국의 복리과 직원분들과 국장님께서 봉사활동을 다녀가셨습니다. 준비해 오신 재료로 다함께 지아오즈(만두)를 만들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맛있게 조리해 모두 함께 즐거운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를 약속해주신 복리과 직원분들과 국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필리핀 다일공동체

이진수님과 이성일 선교사 |

미국에서 날아오신 이진수님 부부를 소개합니다. 휴가차 필리핀을 방문하셨다가 다일공동체의 든든한 후원자. 이성일 선교사님과 함께 다일공동체 밥퍼센터를 찾아주신 이진수 님 부부는 식재료 손질에서부터 시작해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밥을 나누는 일까지 끝까지 땀을 뻘뻘 흘리며 봉사를 하셨습니다. 편안한 휴식 의 첫 시간을 뚝 떼어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아낌없는 나눔을 보여주신 이진수 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김현정, 록니 단기봉사 (8/10-9/1) |

간디학교 졸업생인 김현정님과 록니님이 인도차이나 여행중에 꼭 가봐야 할 곳이라며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찾아 3주 동안 봉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한 봉사팀. 저희야말로 즐겁게 봉사자로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김운섭 가족 (9/13-18) |

캐나다 이민 가족인 김운섭 님 가족이 선교 여행 차 캄다일을 방문하여 봉사해 주셨습니다. 밥퍼 봉사뿐 아니라 지역 탐방을 하며 영어수업, 번역 봉사 등도 함께 해주신 김운섭 님 가족. 해외 사역의 의미를 다지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던 김운섭 님 가족은 앞으로도 후원은 물론 다일공동체 활동에 함께 하겠다며 마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큰은혜교회 비전트립 (9/11-16) |

큰은혜교회(봉천제일교회) 비전트립 팀 24명이 5박6일 일정으로 캄다일과 함께 했습니다. 오전에 는 밥퍼 봉사, 태권도 봉사, 위생 봉사, 지역민 구호 활동을 하였고, 오후에는 각 사역장소를 돌며 준비해 온 성경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캄보디아 땅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즐겁게 봉사해준 큰은혜교회 비전트립 팀 여러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황채순목사님 (9/25-27) |

수상유치원 운영을 후원하고 반티스레이 지역 예배당을 건축 후원하신 황채순 목사님의 방문 봉사가 있었습니다. 늘 캄다일을 위해 기도하시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후원도 아끼지 않으시는 모습이 참 감동적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베트남 다일공동체

LG VINA

1년에 한번씩 꼭 봉사를 와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매년 빠짐없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LG VINA 기업은 봉사활동 뿐 아니라 오실 때마다 보기만 해도 배 속이 든든해지는 쌀과 우유를 준비해오십니다. 그리고 후원금 역시 빼놓지 않고 전달해주십니다. 호치민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LG VINA임직원 분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만나뵐수있길 소망하며, LG VINA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 전합니다. LG VINA 여러분, 최고입니다!

BETHEL VINA

베트남 다일공동체의 사역을 위해 항상 물품으로 봉사를 해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BETHEL VINA 기업입니다. 후원을 요청 드리면 한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는 BETHEL VINA 기업. 기업에서 후원해 주시는 물품은 가방입니다. 가방을 받고 좋아하시는 어르신들과 아이들, 그들이 멋진 가방을 메고 일터로 학교로 가는 모습을 보면 이웃을 생각하고, 아끼는 BETHEL VINA 기업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나눔의 실천을 몸소 보여주는 BETHEL VINA기업이 베트남에서 더욱 더 멋진 기업으로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최고입니다!

신규 후원회원 및 물품 후원 명단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신규후원회원 16.08.16~16.10.15	(주)다사랑기획, (주)데오빌로(김용석), (주)바보스, (주)세빛섬 ,(주)에코푸드코리아 ,(주)인넥스트트렌, (주)청림이에프씨, AHILO(아일로), Ahn Michael Jiwon, 강남청소년쉼터, 강보경, 강서진, 강수정, 고경순, 국립중앙의료원전문의협의회, 기아 청량리점, 김경자, 김경지, 김경현, 김경희, 김광화 외, 김금주, 김길욱, 김명임, 김명희, 김미정, 김민정, 김민주, 김방지, 김병목, 김보라, 김보미, 김복순, 김상오, 김성래, 김성미, 김성준, 김세영, 김승기, 김영자, 김영한, 김완수 외, 김용민, 김우진, 김은진, 김은희, 김의영, 김인석(안신애), 김일동, 김정숙(영락교회), 김정운(김정일), 김정운(전옥분), 김정은, 김정희, 김지혜, 김찬호, 김춘실, 김태윤, 김현석, 김혜지, 김홍석, 김홍수, 김훈희, 나다니엘, 남강비지니스, 노복례, 높은뜻연합선교회, 도기상, 류영희, 모심노인복지센터, 문선실, 문인선교회, 문주, 문혜정, 문화선교예빛, 문화유치원, 민옥경, 박경달, 박경민, 박경연, 박규영, 박다솜, 박대하, 박동현, 박미라, 박선옥, 박세혁, 박숙자, 박순정, 박영희, 박옥경, 박은희, 박장희, 박재완, 박정아, 박정은, 박종산, 박종숙, 박지우, 박현기, 박현성, 박현숙, 방영미, 백경숙, 백암교회, 김용정(법무법인 다담), 변계영(싸이러스), 변미라, 보덕메디팜, 브리쉘와플(주), 서규학, 서도월, 서우현(윤귀자), 서울대도초등학교, 서정숙, 성혜나, 성혜원, 소망교회 건설선교회, 손미화, 송미자, 송병기, 송지예, 송하점, 송현주, 식자재어버이, 신경화, 신동윤, 신송헌, 신현숙, 안근형, 안나겸, 안성혜, 안은희, 애일교회,양덕교회, 양미영, 양혜진, 엄현진, 여성덕, 영시스, 예은희, 오말임, 오유빈, 우리은행 창동지점, 우명덕(김지영), 우명선, 유길정, 유서윤, 유철호, 유한율, 유형민, 유혜란, 윤여헌, 윤재찬, 윤정후, 이규철, 이남희, 이동렬 외, 이문순, 이미정, 이상림, 이석우, 이선우, 이성계, 이수현, 이승완, 이승현, 이영기, 이영원, 이옥자, 이용범, 이용희 외, 이유경, 이윤우, 이은주, 이인재 외, 이정국, 이정석(유지혜), 이정아, 이지혜, 이진욱&지붕위의카페, 이진희, 이찬미, 이현서, 이혜진, 이흥기, 익스피디아, 임경욱, 임명숙, 임수민, 임정 외, 임창일, 임희자, 장민철, 장혜경, 재단법인 동부문화재단, 전경진, 전숙하, 전우치, 전충일, 정나연, 정선은, 정승아, 정연숙, 정영숙, 정지선, 정환규, 정회영, 조남정, 조미라, 조민규, 조영수, 조용범, 조은지, 조이할인마트, 조평래, 조한상, 조현배, 주식회사 삼다남한강마트, 주안장로교회, 지정희, 진현식, 차한송, 채옥기, 천순자, 최광배, 최미숙, 최승희, 최유미, 최은영, 최은화, 최재옥, 최정남, 최정식, 최종기, 최지웅, 최혜정, 충북방앗간, 탑(TOP), 한국경제매거진, 한국자유총연맹동대문구지부, 한상소(제일문화인쇄), 한석례, 한성대, 허윤주, 홍건영, 홍백경, 홍세희, 홍요셉, 황명성, 황석진, 황선우, 황이진, 황효영
다일천사병원&작은천국 16.08.16~16.10.15	**후원물품** / 어린이 의약품지원본부, 이연제약, 알보젠코리아㈜

해외 분원 후원명단은 현지에서 직접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16.08.16~16.10.15	**후원금** / 감곡감리교회, 강규철, 김운섭·김찬미, 김정호, 당산중학교, 당산중학교 정명희, 류한준 비상(큰은혜교회), 벤자민 인재영성학교, 서용준·이현주·이해빈·정형인, 신동신가족, 신월용, 양성수(계명원), 여전도회연합회,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우리집아이, 이문숙, 이재훈·최지경, 인천아동복지협의회, 빛교회 최정남목사님, 카도, 큰은혜교회, 프놈펜교회, 황채순, 홍기원, KT&G 임직원, Methodist Church hongkong **후원물품** / 국립중앙청소년수련관(옷), 대한체육회(의약품, 사탕, 체육용품, 학용품), 여행방문객(옷), 우리집아이(사탕), 인천복지연합회(학용품, 잡화), 제주영락교회(피아노), KT&G(옷), ITE College(옷, 잡화)
중국 다일공동체 16.08.16~16.10.15	**후원금** / 김성재(Obey & Praise), 김웅남, 김철, 다일졸업생 모임 정기후원, 조춘연(포스코), 최연진, 훈춘시 교육국 **후원물품** / 권윤경(아동간식 8회 지원), 림예화+한원철(아동 간식, 각종채소), 리수빈(사과1상자), 무지개 애심협회(치즈떡볶이 30봉투), 애심찰떡(떡), 김나엽(쌀500근, 식용유 외), 훈춘 마마 모임(피자, 쌀100근, 식용유), 훈춘 신촌교회(빵2상자), 무명(월병)
베트남 다일공동체 16.08.16~16.10.15	**후원금** / A PLUS, DAEWOO INTERNATIONAL, LOTTERIA, NAHAL, POSCO VIETNAM, THANH CONG, VEGAS, 고갑순대표(닥터카), 기업은행, 김경중원장(U.E.C학원), Mr. KIM, Mrs. PARK, 대장금, 모금함, 밥퍼29팀,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신덕현님, 아리랑화학, 아산상선, 유현정님, 참조은광성교회, 최준혁님(대.청.밥), 호치민중앙교회, 호치민한인여성회 **후원물품** / Cafe de Bakery(빵), POSCO ICT(쌀, 바나나), THANH CONG(바나나, 쌀, 밥퍼 앞치마, 티셔츠, 비타민), VEGAS(조미료, 우유), 무명(신발), LOTTERIA(voucher), 방기랑(사탕), 사이공드림교회(라면, 우유), 사이공한마음연합교회(바나나, 김, 쵸코파이, 쌀), 양선욱, 허정은 집사님(김밥, 잡채), 통큰소(훈제통닭)
필리핀 다일공동체 16.08.16~16.10.15	**후원금** / 4-H해외봉사팀, 김용민님, 신원선+성실+온유, 필다일스텝, 김인자 권사, 신당중앙교회 은퇴장로회(총부 류진웅 장로), 신순자 권사, 오명옥 권사, 이금자 권사, 최순례 권사, 장선희 권사 **후원물품** / 무명(의사놀이), 박성민목사님부부(150,000상당의 영양쌀), 뷰티플마인드(쌀1,000kg), 안상옥님(배식봉)
네팔 다일공동체 16.08.16~16.10.15	**후원금** / 문호교회, 김지은, 김지혜님, 황선학,황진희님, 조민상 목사님, Ashik님, 박재철, 박양숙님, 무명 **후원물품** / 박재철, 박양숙님(털모자100개, 500,000원 상당)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16.08.16~16.10.15	**후원금** / 서울가든 **후원물품** / 목대권 • 천수희(캐나다), 이진미(캐나다), 임우연(캐나다)

격월로 발행되는 소식지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후원관리실 02-2212-8004

후원안내

문의 | TEL. 02-2212-8004 FAX. 02-2243-8005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을 비롯하여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1:1 해외아동결연(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통하여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며 양육할 수 있습니다.
생쌀이 운동 (Rice Pot Relay)	무의탁노인과 독거노인, 북한전역와 어려운 지역, 해외 빈민촌을 돕기 위하여 쌀을 릴레이 후원하는 캠페인입니다.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다일공동체의 의료지원사업(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해외 보건의료사업, BCP 등)을 위한 후원입니다.
후원계좌 (예금주 : 다일공동체)	sc제일은행 150-10-012464 국민은행 010-01-0619-487 기업은행 017-033086-01-013 농협 351-0741-3770-13 신한은행 140003287625 우리은행 151-05-001902 우체국 010983-01-001609 하나은행 214-890006-95604

미주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Bank of America
예금주: Dail community of USA
계좌번호: 334040926776

International Swift code (한국 및 외국에서 송금시) : BOFAUS3N
Domestic ABA code (미국내 타주에서 송금시) : 026009593
Routing # (미국 조지아에서 송금시) ; 061000052
은행주소 : GA7-914-01-01, 2608 Pleasant Hill Road Duluth, GA 30096
TEL: 678-323-0222

캐나다 후원계좌

TD Canada Trust Bank
Account No : 5222930
Transit No :13542
Inst. No : 004
Account Name : Dail Community of Canada Pay to. Dail Community of Canada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미주에서 후원하신 후원금은 미국 다일공동체를 통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내 · 해외분원연락처

다일공동체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2-8004

밥퍼 나눔운동본부
02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8
Tel. 02-2214-0365

다일 천사병원, 다일 작은천국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3-8004

설곡산 다일공동체
12471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번지
Tel. 031-585-2004

다일 평화의 마을
12474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Tel. 031-568-5004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St N'63 Toul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Tel. +855-12-808-861
프놈펜 지부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 Penh City, CAMBODIA
Tel. +855-12-808-861

중국 다일공동체
133300 吉林省 珲春市 新安街 多一少年之 家
Tel. +86-433-753-8004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Manoho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Post Box No. 25655 Kathmandu, NEPAL
Tel. +977-98494-58330 / +977-98038-00670
포카라 지부
17 Damside Kaski, Pokhara Sub Municipality, Nepal
Tel. +977-98607-76685

우간다 다일공동체
P.O Box 85 Kisubi, UGANDA
Tel. +256-77107-2382

필리핀 다일공동체
BLK 8 Lot 3 Calliandra st. I Greenwoods, Paliparan#1 Dasmarinas, Cavite 4114, PHILIPPINES
Tel. +63-92-7560-7346 / 070-8220-327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Plots No. 192 at Jangwani Beach, Kinondoni Munioipality, Dar_es_salaam city Tanzania
Tel. +255-755-154-246

베트남 다일공동체
R4-51 Hung Gia2, PMH, Tan Phong Ward, District7, HCMC, VIETNAM
Tel. +84-9038-20918

미주 다일공동체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44
www.dailusa.org

캐나다 다일공동체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Tel. +1-416-824-4831

DAIL

다일공동체 후원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 만원의 행복 월 1만원 _____구좌

☐ 일대일아동결연 월 3만원 _____명

☐ 기타 월 _____원

일시후원

☐ 다일천사후원 1구좌 100만원

☐ 다일평생천사후원 1구좌 1,004만원

☐ 다일레거시10(유산기부)

☐ 기타 _____원

재능기부

☐ 영문 통/번역(한<->영) ☐ 디자인/영상 ☐ 기타 _____

후원회원 정보

이름		주민등록 앞번호	(남/여)
연락처	☐SMS수신동의	이메일	☐Email수신동의
주소			☐우편물수신동의

CMS 자동이체 동의서 (정기후원에 해당)

출금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이체희망일	☐ 5일	☐ 15일	☐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번호				(남/여)

CMS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전체)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기재해주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다일공동체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한 기부금영수증발급 및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부금영수증 서식(소득세법 별지 제45호 의 2서식)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및 국세청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허용 사용〉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등록 및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DAIL 다일공동체 DAIL COMMUNITY

최일도 목사와 함께 하는 눈물과 감동의 힐링여행

아름다운 세상찾기

숨가쁘게 돌아가는 일상을 잠시 멈추고, 우울증, 중독, 가정불화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영성수련

일정안내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4박 5일)

178기/ 12월 27일 ~ 12월 31일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설곡산갈보리채플 담임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등록안내 및 입금계좌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련 한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금계좌 : 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 다일공동체)

신청 및 문의

문의 : 031 585 2004
010 6375 8004
홈페이지 : www.dail.org

갈보리 채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설곡산갈보리채플 SEOLGOKSAN CALVARY CHAPEL

1988년 청량리에서 시작한 다일공동체가 초심으로 돌아가 나사렛 예수의 영성생활과 예배 예전의 갱신으로 성사생활을 더욱 더 추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배하는 삶의 자리를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의 설곡산으로 옮겨서 매주일 공동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이 살아있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원하시는 귀하를 설곡산 다일공동체의 갈보리 채플에 초대합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 10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 산 52

Tel. 031 585 2004 김철민 전도사 010 2752 9004
네비로 '설곡산 다일공동체'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청량리 밥퍼에서는 매 주일 오전 8시에 셔틀 버스가 출발합니다.

후원방법

모든 후원금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와 CMS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www.dail.org

전화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전화 02.2212.8004로
후원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2.2212.8004

우편으로 신청하기

소식지 안쪽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025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카카오톡
친구추가

→

QR코드로
추 가

또는

아이디로 추가

dailwf

→

친구등록
완 료

다일QR코드

다일공동체 카카오톡 친구를 맺으시면 문의 답변 및 다일공동체의 소식을
보다 신속하게 받아 보실 수 있고
더욱 간편하게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신청서
작 성
예금주 서명 必

→

후원신청서
사진 전송

→

다일직원
확인전화